미디어, 젠더 & 문화(9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08년 4월 1일

미디어 사회문화사 –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

이상길*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최근 풍속사 또는 문화사의 영향 아래 역사학, 국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사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도 그러한 연구들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그러한 연구들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해왔던 또는 때로 무시해왔던 개념적·이론적 논점들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기존 작업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미래의 생산적인 모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그동안 모호하게 쓰여 온 '미디어' 개념을 기호체계, 상징형식, 기술, 제도라는 구성요인들로 명료화하고 그 일반적 효과를 정리해본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미디어 사회문화사' 쓰기의 관점과 방법을 기존 '미디엄 이론(Medium theory)'의 거시사적 시야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해본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디어 사회문화사가 근대성의 문제설정 내에 어떻게 배치될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이상과 같은 논점들을 바탕으로 이 글은 한국의 독특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미디어가 보여준 복잡한 역사적 발전경로와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 미디어, 사회문화사, 미디엄 이론, 근대성, 역사쓰기

* parrhesia@yonsei.ac.kr

1. 들어가며

최근 풍속사 또는 문화사의 영향 아래 역사학, 국문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사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도 그러한 연구들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커뮤니케이션사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인간사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커뮤니케이션은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한데 커뮤니케이션사는 '역사 일반'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커뮤니케이션사가 차별화된 의미를 가진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물질적·제도적 기반으로 삼는 미디어를 그 중심에 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사는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되고 구조화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역사서술을 뜻한다.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지만, 현재의 커뮤니케이션사는 미디어 사회문화사와 동일시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작업은 대부분의 역사연구가 그렇듯 뚜렷한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 채 주로 새로운 자료의 개발과 소재의 확장에 기댄 세부적인 경험연구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그 밖에 경험연구가 활성화된 일부 개별 미디어 — 신문, 방송 — 를 중심으로 약간의 메타연구가 나와 있을 따름이다. 이 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사가 언론학을 넘어선 여러 분과학문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미디어의 범위도 전통적인 신문, 방송에서부터 잡지, 영화, 전화, 오디오, 만화, 삐라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일종의 메타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메타연구로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메타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반성과 전망의 제시가 귀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론적·논리적 명료화를 통해 효과적인 역사서술과

총체적인 접근, 그리고 새로운 연구대상의 구축가능성을 제시하는 연역적인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글은 뒤를 되돌아보기보다 앞을 가리키는 '연구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격을 띤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이 커뮤니케이션사 또는 미디어 사회문화사 연구를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안내문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연구에서 그러한 안내문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이 되풀이해 지적한 바 있듯, 역사연구의 다원성이란 인식론적인 항수 내지 필연성에 가깝다(Cf. Veyne, 1971). 그런 만큼 이 글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일 따름이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많은 관련 연구들이 미디어 개념과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의 모호성으로 좀 더 복잡하고 풍부한 탐구대상, 논의지점들을 단순화하거나 간과해왔다는 데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이 글은 역사연구들이 무의식적으로 전제해왔던, 또 때로는 무시해왔던 개념적·이론적 논점들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기존 작업의 비판적 성찰과 미래의 생산적인 모색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제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과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의 논의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쓰여 온 '미디어' 개념이 어떤 구성요인들로 명료화될 수 있는지 정리해본다. 이는 역사적 접근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미디어의 여러 이질적 층위를 분간해내고 종합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디어 사회문화사' 쓰기의 관점과 방법을 기존 '미디엄 이론(Medium theory)'의 거시사적 시야와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끝으로 미디어 사회문화사가 근대성의 문제설정과 맺는 관계를 조명하고 그 쟁점들을 논의해본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연구프로그램이 어떤 인식론적 입지 위에 서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볼 것이다.

2. 미디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미디어는 메시지다." 매클루언의 1964년 저작 『미디어의 이해』가 치른 유명세는 이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명제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McLuhan, 1964). '미디어의 메시지가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가'라는 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미디어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매클루언의 발상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더욱이 그는 책,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전깃불, 도로, 시계, 집 등을 모두 미디어로 간주했다. 일종의 범(pan)미디어주의라고나 할까.[1] 미디어가 단순한 '메시지 전송기술'이 아니라 '인간 감각과 신체의

1)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사실 매클루언보다 조금 더 일찍 이러한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바르트의 기호학적 기획에 실질적인 바탕을 마련해준 저작인 『신화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바르트는 문맥상 미디어와 다를 바 없는 지지체 또는 질료라는 용어를 주로 쓰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글로 된 담론, 사진, 영화, 르포, 스포츠, 스펙터클, 광고 이 모든 것은 신화적 파롤(parole mythique)의 지지체(support)가 되어줄 수 있다. 신화는 그 대상에 의해서나 질료(matière)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질료는 자의적으로 의미작용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어떤 사물이든 의미작용을 하는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바르트에게 이 미디어는 곧 메시지이기도 하다. "나는 바다 앞에 있다. 아마도 바다는 아무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닷가에는 기호학적 질료가 넘쳐난다. 깃발, 슬로건, 신호, 간판, 옷, 심지어 그을린 피부 등은 내게 모두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바르트에 따르면, 이 메시지는 다양하고 이질적이라기보다 일종의 단일한 총체를 이룬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해야만 한다. 즉, 신화적 파롤의 질료들(좁은 의미의 언어, 사진, 그림, 포스터, 의례, 사물 등)은 애당초 아무리 다를지라도 일단 신화에 사로잡히는 순간 순수한 의미작용 기능으로 되돌려진다. 그것들은 모두 언어의 단순한 지위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통일성을 가진다."(이상의 인용은 각각 Barthes, 1957, p. 216, 219, 211) 한마디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은 의미작용을 할 수 있는 미디어이며, 따라서 메시지이고, 그 메시지는 곧 신화라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렇게 기호학적 기획을 통해 (매클루언처럼) 미디어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동시에, (매클루언과 달리) 개개 미디어의 고유한 물질성은 휘발시켜버리는 특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이후 기호학의 발전이 반드시 바르트의 원초적 기획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많은 기호학자들이 다양한 대상과 질료(또는 미디어)의 특성이 의미작용에 개입하는 방식을 분석에 고려하게 되기 때문이다.

확장인 모든 기술'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러한 주장은 그 즈음 '미디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비판 또한 적지 않게 쏟아졌다. 에코의 에세이 「코기토 인터룹투스(Le Cogito Interruptus)」(1967)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Eco, 1985). 이 글은 비록 40년 전에 씌어졌지만 미디어 개념에 대한 명료한 성찰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흥미를 끈다.

1) 매클루언 대 에코, 그리고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그 자체'

'코기토 인터룹투스'란 아무런 합리적 연관이 없는 두 사실을 연결시키는 태도를 가리키는 논리학 용어이다. 제목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에코는 매클루언의 미디어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약호(code), 메시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미디어라는 말 안에 뒤섞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에코의 용법에 따르면, 도로는 채널이고, 문자언어나 유클리드 기하학은 (경험을 형식화하는 방식인) 약호이며, 옷차림은 (옷 입는 관습을 기반으로 삼는 의미작용인) 메시지다. 그런데 매클루언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미디어라는 용어로 쉽게 동일시해버린다. 이는 우리를 개념적인 혼돈상태로 이끈다. 이를테면 매클루언은 전깃불이 미디어라고 말한다. 그것은 어떤 이름이나 선전 문구를 나타내는 데 쓰이지 않는 한 순수한 정보로서 메시지가 없는 미디어이자 내용과 분리된 형식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에코에 의하면, 전깃불-미디어는 최소한 세 가지의 변별적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신호(signal)로서의 전깃불이다. 약속에 따라 깜박거리는 전깃불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신호이다. 둘째, 메시지로서의 전깃불이다. 밤늦은 시간, 창문가에 켜져 있는 불빛은 그 자체로 '잠 못 이루고 있다'는 메시지 노릇을 한다. 셋째, 채널로서의 전깃불이다.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거리에서 우리는 포스터를 볼 수 있다. 이때, 광파는 이미지 약호를 운반하는 채널이다(Eco, 1985, pp. 312~332).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에코는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명제가 모호하며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동시에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메시지의 형식이 진정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방가르드 문학비평의 관점과도 통한다. 다음으로 약호, 즉 언어나 기타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구조 자체가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세계관이 언어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벤자민 리 워프(Benjamin Lee Whorf)의 인류학적 입장을 연상시킨다. 마지막으로 채널이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는 메시지 전달을 위해 선택된 질료가 메시지 형식과 내용을 규정한다는 미학에서의 상식을 환기시킨다. 에코의 이러한 구분은 이중적인 방식으로 매클루언 명제의 해체를 겨냥한다. 한편으로는 범주혼동에서 비롯된 부정확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제 의미의 평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에코는 약간의 패러디를 곁들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디어는 메시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식인종 추장에게 시계는 시간을 공간화하려는 의지의 표상이 아니라 목에 걸 수 있는 운동성의 장신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Eco, 1985, p. 329). 어떠한 사물이나 정보는 수용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매클루언을 공격하는 에코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미디어라는 말 속에 한데 뒤섞어놓는 여러 개념 또는 하위범주들을 좀 더 명확하게 갈래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막연한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텍스트의 다의성과 수용자의 다양한 해석, 이용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코의 예리한 비판에서 보는 것처럼 미디어 개념이라든지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명제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적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미디어의 이해』를 위시한 매클루언의 논의가 아무런 의미 없는 지적 헛발질이었다고 가볍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최소한 ‘미디어 그 자체’가 행사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력의 차원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 예로

텔레비전의 존재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에 대한 수용자의 해독과는 별개의 사회적 중요성을 가진다. 매클루언이 혼란스럽게 논하는 '미디어 그 자체'는 크게 물질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의 경우 물질적 측면은 시청각적 기호체계를 화면 위에서 구현하는 특성을, 제도적 측면은 20세기 중반 이후 가정에서 정보와 오락 소비의 중심기구로 자리 잡은 상황을 각각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는 내용물을 실어 나르는 단순한 도관(circuit)이나 내용물의 의미와 제시방식을 조건 짓는 문법 또는 언어(language) — 예컨대 초점, 조명, 카메라 앵글, 편집 등 표현기법이나 생산방식 — 로서만이 아니라 환경(environment)으로서 재인식된다(Meyrowitz, 1993).

매클루언은 그러한 측면을 다시 인간의 인지, 감각구조와 심성의 변화에, 그리고 근대성(modernity) 비판에 연결 지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또 미디어 연구의 인문학적 전통이 지니는 의의를 재확인했다. 그 결과 이전까지 결코 풍성했다고 할 수 없는 미디어에 대한 철학적·미학적·역사학적 논의가 재조명 받고 새롭게 명맥을 이어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사실 매클루언의 담론은 그를 전후로 한 해롤드 이니스(Harold Innis), 월터 옹(Walter Ong), 에릭 헤이블록(Eric Havelock), 잭 구디(Jack Goody), 엘리자베스 아이젠슈타인(Elizabeth Eisenstein), 프리드리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 조슈아 메이로비츠(Joshua Meyrowitz) 등의 중요한 작업을 하나의 전통으로 잇는 디딤돌 구실을 했다. 메이로비츠는 (기존의 다양한 미디어 이론과 구별하기 위해) 이 연구전통에 '미디엄 이론(Medium Theory)'이라는 이름을 붙인 바 있다. 메이로비츠에 따르면, 그 이론의 중심질문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지니는 상대적으로 고정된 속성들은 무엇인가? 이 속성들로 인해 특정한 미디어는 면대면 상호작용이나 다른 미디어와 어떤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차이를 가지게 되는가?"(Meyrowitz, 1994, p. 50) 그러니 비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론과 자기홍보 전략을 교묘히 결합시킨 '팝 철학'에 불과하다는 신랄한 비난도 없지 않지만(Hardt, 1992, pp. 203~204),

매클루언의 지적인 기여를 하잘것없다는 듯 지나쳐버리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에코의 매클루언 비판은 대체로 타당해 보인다. 특히 미디어라는 용어의 일상적·학문적 쓰임새에서 흔히 드러나는 혼동을 걷어내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여전히 의미 있다. 예컨대 누군가가 "문자의 발명이 인류역사의 전기를 마련했다"라거나 "텔레비전이 20세기 정치의 작동방식을 변화시켰다"라고 쓸 때, 또는 "그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거나 "전화 좀 받아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문자'와 '텔레비전'과 '영화'와 '전화'를 다시 '미디어'라는 총칭명사 속에 한데 집어넣을 수 있다. 이는 미디어라는 말이 쓰이는 현실을 인정한다면 불가피한 일이지만 반드시 적절한 것은 아니다. 앞의 문장들에서 문자는 '기호체계(system of sign)'를, 텔레비전은 '제도(institution)'를, 영화는 '상징형식(symbolic form)'을, 전화는 '기술(technology)'을 구체적으로 뜻하기 때문이다. 미디어라는 용어는 이 모든 의미론적 층위들을 아우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때로는 그 층위들이 정확히 인지되고 구분되지 않으면 논리의 비약이나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만 한다. 물론 그것들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며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데 바로 그 상호 연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구분이 요구되는 것이다.

2) 미디어: 기호체계, 상징형식, 기술, 제도

먼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지배받는 기호체계가 있다.[2] 우리는 크게 말, 글, 이미지라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기호체계를 구별할 수 있다. 이들의 기능이 서로 다른

2) 에코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약호라는 용어를 썼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호는 발신자와 수신자 간 메시지의 이해에 필요한 사전 규약(convention préalable)이라고 정의되기에(Escarpit, 1976, p. 26), 우리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기호체계라는 용어를 쓴다. 기호체계는 의미작용을 위해 그러한 약호를 요구하며 또 내포한다.

규칙 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풍자만화에 담긴 정보를 글로 완전하게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톤이나 아이러니는 특히 그렇다. 기본적인 기호체계들은 서로 결합해 혼종의 기호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만화나 말과 이미지에 자막까지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상상해보면 된다. 이러한 기호체계와 그 약호, 그리고 수사학을 잘 알고 있어야만 발신자와 수신자는 메시지를 통해 서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한편 상징형식은 기호체계를 이용한 담론의 조직유형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소설이라든지 뉴스, 드라마, 영화 등은 모두 하나의 상징형식인 셈이다. 그것은 다시 하위장르들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3] 상징형식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미디어 기술과 관련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면서 다양한 기술을 가로지른다. 한 예로 영화는 '극장에서의 스크린 상영'이라는 기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으며 나름의 고유한 역사를 가지는 상징형식인 것이다.

미디어의 또다른 의미론적 층위인 기술은 상징형식을 생산, 보존하고

3) 상징형식은 철학자 에른스트 카시러(Ernst Cassirer)의 주요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인간을 무엇보다도 상징적 동물로 본 카시러는 상징형식의 구체적인 예로 언어, 신화, 종교, 예술을 들었다. 그에 따르면, 상징형식은 정신적인 것의 의미내용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기호에 연결하고 그 기호에 내재적으로 속하게 만드는 정신의 힘이다. 이는 인간이 외부세계에 대한 인상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Cassirer, 1923, p. 21).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나 존 톰슨(John Thompson) 등은 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채 정보에서부터 다양한 문화 산물에 이르는 의미화 실천의 결과물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데 쓴다. 그들이 구조주의 계열의 다른 용어들을 두고 구태여 카시러의 이 개념을 쓴 데에는 인간의 문화구성적인 행위능력에 강조점을 찍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이러한 사회학적 용법을 어느 정도 따르는 동시에 상징형식이 끊임없는 분화(differentiation)와 분류화(classification)의 투쟁 속에 있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우리가 흔히 장르, 하위장르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상징형식과 유사한 의미로 표상이나 텍스트, 담론 등의 개념이 쓰일 수도 있으나 미디어별로 또는 미디어 내에서도 일정하게 분화되고 유형화된 의미체들의 특성을 포착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상징형식이 가장 나은 개념이라 여겨진다.

유통, 재생하는 데 이용되는 물질적 기반을 가리킨다. 그 종류는 채널, 지지체, 보조기기 등으로 다양하며 서로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채널이 광파나 음파, 전파 등으로 변환된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물리적 수단이라면, 지지체(support)는 그것을 (해독해서 원래대로) 구현하는 물리적 수단을 말한다. 텔레비전의 경우 공기나 케이블망은 채널이 되며 수상기는 지지체가 된다. 이 밖에도 녹화와 편집기기, 리모컨, 비디오, 위성 등 여러 관련 기술이 텔레비전에 연계되며, 이는 근본적으로는 전기망이라는 거대기술체계(macro technical system) 위에서 작동한다.[4] 이러한 미디어 기술은 순수한 중립적 매개체가 아니며 상징형식의 전달과 수용을 조건짓는다. 그 가운데서도 지지체의 의미는 각별하다. 그것이 수용자의 감각경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글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방식은 지지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루마리 책(volumen)은 각 문단이 선형적으로 이어져 있어 뒤로 되돌아간다든지 전체를 살펴보기란 어렵다. 반면 우리가 현재 쓰는 형식의 제본된 책(codex)은 앞뒤로 자유롭게 넘겨볼 수 있다. 또 저자의 흔적이 남아 있는 필사본과 인쇄물을 읽는 방식은 동일할 수 없다. 똑같은 인쇄물이지만 신문은 크기라든지 전체적인 내용배치, 제목, 활자체 등을 통해 책과는 읽는 방식이 달라진다. 전자책은 화면 위의 재현과 하이퍼텍스트 방식의 연결에 의해 또다른 형식의 읽기를 가능하게 만든다(Cf. Chartier, 1997).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하나의 제도로서 가지는 의미 차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는 미디어의 존재양식, 수용형식과 효과가 사회공간 내 복잡한 역학에 의해 특정한 방식으로 틀지어지기에 그런 것이다. 미디어의 용도는

4) 거대기술체계는 복잡한 기계와 물리적인 구조들로 이루어진 이질적 기술체계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특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조건들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지니면서 광범위한 공간에 장기간 물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수많은 다른 기술들의 작동을 지원하는 거대기술체계는 다양한 물리적 단위들(인간, 상품, 전자, 음파 등)을 전송하고 또 중개하면서 초국가적인 공간을 만들어낸다. 철도와 전기는 최초의 거대기술체계로 꼽힌다(Gras, 1993).

기술적 속성들의 단순한 실현이 아니라 사회적 힘들에 의해 일정하게 조율되고 체계화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애당초 과학적·기술적 용도가 두드러졌던 사진기는 도시화, 식민화 등으로 이동성이 높아지고 빠른 변화가 진행되던 19세기 말 유럽사회에서 새로운 문화적 중요성을 부여받았다. 사람의 이미지를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이 기록과 감정교류의 목적에 통합되었던 것이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동과도 맞물리면서 사진기는 가족애의 관리를 위해 널리 이용되기에 이른다. 또다른 예로 20세기 초 미국에서 전화는 직접적인 대인커뮤니케이션을 허용해주는 기술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와 사업상 거래의 증가에 따라 그런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렇게 발전한 전화는 다시 교외에서의 통근과 같은 새로운 거주형태를 가능하게 만들면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 교류를 나누는 대인관계를 구조화했다(Cf. Williams, 1981). 개별 미디어들은 서로 경쟁하는 동시에 의존하는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다. 그에 따라 미디어는 어느 정도 미리 정해진 가치와 규칙, 절차에 맞추어 작동하는 조직이자 제도로서 여러 다른 제도 및 사회경제적 조건과 긴밀한 영향관계를 맺는다. 20세기 들어 신문, 방송과 정치, 경제제도가 구축한 밀접한 상관성은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미디어는 기호체계, 상징형식, 기술, 제도로서의 의미론적 층위가 겹쳐져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손 안의 책이나 눈앞의 텔레비전 수상기는 언제나 더욱 거대하고 복잡한 책-미디어, 텔레비전-미디어를 가리키는 일종의 환유일 따름이다. 미디어로서 책의 특성은 '글'이라는 기호체계, '소설' 또는 '에세이' 같은 상징형식, '제본된 책'이라는 지지체 및 관련된 여러 기술의 성격, 출판사 조직, (혼자서 조용히) 책읽기라는 실천 및 교육제도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의 특성은 시청각적 기호체계, 뉴스나 드라마 같은 상징형식, 수상기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방송사 조직, 가정에서의 정보, 오락수용 활동 및 그에 연계된 각종 사회제도를 고려해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미디어의 발전과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회 안의 개인들이 상징형식을 생산, 전달, 공유하는 활동, 즉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 동시에 에코의 주장처럼 그 활동의 효과는 일방적이며 포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텍스트의 다의성과 수용자의 활용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반드시 의식적·상징적 수준에만 머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의도되지 않은 실제적 효과 역시 가져온다.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메시지 전달의 의도를 가진 발신자와 그것을 해독하는 수용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에 요구되는 전제들'의 공유를 전제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바로 그 전제들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무의식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미디어는 사회통합기구 또는 지배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전제들을 기본적인 기호체계의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미디엄 이론의 시각이 있다. 이를테면 말이라는 청각적 기호체계는 동시적·종합적·포괄적 지각을 자극하는 데 비해 글이라는 시각적 기호체계는 선형적·분석적·논리적 사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미디엄 이론에 따르면, 사회 내 지배적인 미디어-기호체계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문명의 변화를 이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의 전제들을 배경지식이나 공통문화의 수준에 놓는 시각도 있다. 이는 다시 긍정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입장으로 갈라질 수 있다. 긍정적 입장은 즉각적인 이해와 공감 위에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힘을 확인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송의 관점(transmission view)'을 비판하면서 '의례의 관점(ritual view)'을 옹호하는 미국 문화연구의 조류에서 잘 드러난다(Carey, 1989, 1장). 그러나 비판적 입장은 커뮤니케이

션 아래에서 작동하면서 지배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는다. 바르트의 기호학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미디어는 사회세계 안에서 새로운 유형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빚어낸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과 교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화시킨다. 가장 기초적인 면대면 상호작용(face-to-face interaction) 외에도 매개된 상호작용(mediated interaction)과 매개된 유사-상호작용(mediated quasi-interaction)이 일반화하는 것이다. 이 상호작용들 나름의 특징을 쉽게 파악하려면 일상적 대화, 전화통화, 텔레비전 시청을 각각 떠올리면 된다. 일상적 대화는 커뮤니케이션 당사자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적 매개물 없이 특정한 상대와 쌍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전화통화는 당사자들이 공간적으로 — 만일 자동응답기를 이용한다면 시간적으로 — 떨어져서도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적 매개물을 통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의 특징에 의해 제약받는다. 텔레비전 시청 역시 기술적 매개물에 의존해 송신자, 수용자 간의 공간적·시간적 분리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 경우 얼굴을 맞댄 대화나 전화통화와 달리 커뮤니케이션은 대중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Meyrowitz, 1985; Moores, 2000, pp. 135~150; Thompson, 1995, p. 85). 사회조직 방식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상호작용 유형들은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 형편이다.

셋째, 상호작용 유형의 변화와 다양화는 시간-공간 사이의 엇갈린 결합들을 통해 개인의 시공간 경험방식을 특이하게 구조화한다(Moores, 2000, pp. 105~116; Thompson, 1985, pp. 31~37). 예를 들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다든지 미디어에 저장된 과거의 정보를 아무 때나 이용하는 등의 현상은 시간-공간 조합을 새롭게 만들면서 전례 없던 경험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거리에 구애받지 않으며 놀랍게 빨라진 커뮤니케이션 속도는 '시공간 압축(space-time compression)'의 경험을 자극한다. 또 과거는 책, 신문,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우리 현재 속에 끊임없이 소환되고 재해석된다. 더욱이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상징형식을 애초 그것이 생산된 시공간 맥락으로부터 분리시키며 다른 맥락 안에 삽입한다. 이는 상징형식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맥락 역시 재구성하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미디어 기술은 지식의 사회적 생산과 축적, 유통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지식은 물질적 기반 없이 존재할 수도, 발전할 수도, 확산될 수도 없다. 미디어 기술은 바로 그 기반을 제공한다. 정보를 고정하고 저장하며 복제하는 기술은 지식의 성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활판인쇄술의 발명에 힘입은 책의 대량생산과 보급이 유럽에서 근대 과학혁명을 촉진시켰던 사실은 그 단적인 예다. 탈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을 매개로 부상하는 '작은 지식'들의 네트워크 또는 '집단지성'은 또다른 예를 이룬다. 여기에서 "정보는 상대적으로 '날 것'이며 특수하고 실용적인 것이라면 지식은 '요리된 것', 사유에 의해 처리되거나 체계화된 것"이라는 느슨한 정의를 취한다. 모호한 이 정의는 지식의 다원성과 그 사회적 분류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자의성을 전제한다(Burke, 2000, p. 11). 미디어 기술은 이러한 지식의 생산과 집적, 불균등한 분배를 통해 한 사회 내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의 형성과 그를 통한 지배관계의 작동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다.

정리하자면, 미디어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의 다층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반드시 의도되지 않은 차원에서 관계구조와 사회조직, 그리고 지식과 경험지평의 근본적인 변동을 낳을 수 있다. 기호체계, 상징형식, 기술, 제도의 복합적 층위에서 미디어는 권력과 문화의 중요한 매듭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선 아마 매클루언도 에코도 별 의견 차이가 없을 것이다.

3. 미디어 사회문화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매클루언을 비롯한 미디엄 이론가들의 작업은 '환경으로서의 미디어 그 자체'에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을 역사적이며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탐구했다. 그리하여 그것은 지금까지도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기본자원을 이룬다. 주류 역사학의 영역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무게중심을 둔 연구는 적어도 (책의 문화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까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5] 그런데 이탈리아의 역사가 크로체(Croce)

---

5) 프랑스의 계몽철학자 마르키 드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1743~1794)가 1793년에 쓴 저작인 『인간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는 아마도 커뮤니케이션의 기술과 능력의 발전을 기준삼아 서구에서 시도된 최초의 역사서술이 아닌가 한다. 『개요』에서 콩도르세는 자신이 살던 시기까지의 역사를 아홉 단계로 구분하고, 열 번째로 인간정신의 미래의 진보에 관한 논의를 펼친다. 그가 보기에 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무한한 인간능력을 실현하고 그 구체적 산물인 과학을 진보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시대구분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 콩도르세가 제시하는 인류역사의 세 번째 시대까지는 인간이 군집하고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 진화한 후 알파벳 문자를 발명하에 이르는 기간이다. 그로부터 일곱 번째 시대까지는 페니키아인들로부터 알파벳을 전수받은 그리스에서 과학이 발전하다가 분화와 쇠퇴를 경험한 후 십자군 원정 무렵 유럽에서 다시 과학이 번성하고 인쇄술의 발명이 이루어진다. 여덟 번째 시대는 인쇄술의 발명 이후 과학과 철학의 진보가 기존의 권위를 뒤흔드는 시기이다. 콩도르세에 따르면, 근대의 인쇄술 발명은 언어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는 통제 불가능한 지식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인간의 지적 계몽을 촉진했다. 그 결과 이루어진 이성과 자유의 승리에 힘입어 독립된 여론의 법정이 등장했다. 인쇄술의 발전과 확산은 국제어인 라틴어를 사용하는 과학자 집단의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과학적 탐구에 더 많이 참여하게끔 북돋웠다. 인쇄술은 책의 수많은 복제와 빠른 배포를 가능하게 만들었고, 계몽은 활발하고 보편적인 상업의 대상이 되었다. 달리 말하면 인쇄술은 순수한 계몽의 빛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던 것이다. 과학이나 법, 철학, 역사에 관해 라틴어로만 쓰던 관습이 각 국가의 세속언어를 쓰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에 따라 도래한 아홉 번째 시대는 데카르트에서부터 프랑스 공화정이 성립하는 시점까지이다. 콩도르세의 이 '커뮤니케이션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는 우선 권력과 지식, 언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가 보기에 과학발전은 이제까지 소수의 지배층이 권력을 유지,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느리게 이루어졌다. 이는 문자기술의 통제와도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문자야

의 말처럼 역사쓰기의 처음과 끝이 결국 시대구분이라면, 미디엄 이론의 거시사적 시각은 상당히 균질적인 시대구분의 상을 그려왔다고 볼 수 있다. 단순화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미디엄 이론가들은 인간문명의 역사를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주요형식과 맞물리는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즉, 우리는 전통적인 구술사회에서부터 (과도기적인 필사단계를 거쳐) 근대의 인쇄사회에 이르렀다가 다시 전지구적인 전자문화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6] 일단 메이로비츠의 정리를 중심으로 구디와 옹, 아이젠슈타인과

말로 전통을 보존하고 고정하며 지식을 전달하고 소통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예컨대 종교권력을 소유한 성직자계급이 자신들 내부의 언어와 대중의 언어를 따로 발전시킴으로써 진리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가한다. 그는 또 인쇄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상황을 해체하고 과학의 발전을 추동한 중요한 계기라고 본다. 다음으로 콩도르세는 일종의 진보사관을 전개한다. 과학의 힘과 인간정신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그가 역사에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언어와 관계있다고 보고 최선의 현실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보편적 인공언어를 요청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이미 과학자들은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과학적 언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수학적 언어를 낳았다. 미래의 보편언어는 보편과학의 성립에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콩도르세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사, 보편사의 기획 아래 서구 중심, 자계급 중심의 편향성을 드러낸다. 그는 인류의 보편적 진보와 서구문명의 역사적 진화를 동일시했다. 나아가 지식인 사회가 인류의 완전성을 위한 노력의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콩도르세 또한 근대 서구 계몽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냈던 여러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다(Condorcet, 1988).

6) 이는 책이 사라진 영상문화의 시대를 그린 프랑수와 트뤼포(François Truffaut)의 영화 <화씨451>(1966)을 연상시킨다. 그 영화의 미래세계에서는 심지어 신문 내용조차 이미지로만 전달된다. 책 읽기는 금지되어 있다. 이 금기를 어기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적발되어 처벌받으며 책은 불태워진다. 영화 속 주인공은 이 사회를 탈출해 책들의 도시로 간다. 거기 모여 사는 사람들은 자꾸 사라져만 가는 책을 보존하기 위해 그 내용을 송두리째 암기한다. 한 사람은 곧 한 권의 책이기도 하다. 그의 이름은 자신이 외우고 있는 책의 이름이다. 그는 죽을 때 자기-책의 내용을 다른 이에게 전수한다. <화씨451>은 이른바 '영상시대'라는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과 구술, 책과 문자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영화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미디엄 이론의 역사인식이 보여주는 '거시사적' 시대구분이 구술 - (문자) - 인쇄 - 영상이라는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화씨451>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삼아 덧붙이자면 이 영화의 원작은 1953년에 출간된 미국 소

매클루언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그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Eisenstein, 1983; Goody, 1990; McLuhan, 1964; Meyrowitz, 1994; Ong, 1982).

1) 구술문화, 문자문화, 영상문화

미디엄 이론가들은 우선 구술문화와 문자문화를 선명하게 구분하며 대비시킨다. 그러한 시각 아래에는 '말'과 '글'이라는 기호체계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감각양식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구술문화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사람의 몸이 주된 미디어이며 면대면 상호작용이 일반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실제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물리적 현존을 전제한다. 이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 사회적 위계와 관점의 분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문다. 관념과 습속의 보존은 사람들의 기억력에 의존하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암기와 낭송에 쓰인다. 기억하기 어렵고 많은 이들에게 전수되기도 어려운 개인적 표현, 새로운 발상, 복잡한 논증은 구술문화에서 발전하기 어렵다. 새로운 것의 창조는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변화는 느리게 일어난다. 구술문화는 이렇게 해서 전통사회를 특징짓는다.

미디엄 이론가들에 따르면, 글쓰기의 발명과 확산은 이러한 구술문화를 붕괴시켰다. 글은 말과 달리 개인에게서 독립되어 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또 분리시킨다. 실질적 공동체와는 다른 차원의 정신적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글과 더불어 여러 감각기관의 균형은 해체된다. 청각을 통한 동시적인 감응 대신 시각을 통한 연속적인 지각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글은 단번에 기억하기 힘들 만큼 길게 연결된 생각들을 구성하고 또 보존할

설가 레이 브래드버리(Ray Bradbury)의 책이며, 그 시초가 된 작품은 1950년에 『갤럭시 사이언스 픽션』지에 게재되었던 단편 「방화수」이다.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단계적이고 추상적인 추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끈다. 미디엄 이론가들이 인쇄술의 발전을 중요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문자문화를 전 사회에 확산시키면서 글의 영향력을 가시화시켰기 때문이다. 중세까지만 해도 글은 정보를 단지 기록하고 보전하는 수단으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다. 그 영향력은 15세기에 인쇄술이 확산되고, 16~19세기 학교교육의 확대와 함께 문자해독률이 높아지면서 비로소 뚜렷해지기 시작한다.

인쇄술은 구술이나 필사본에 의한 지식전수로 흔히 일어나는 내용상의 오류와 변형, 그리고 수용층의 한계를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것은 지식의 규격화와 조직화를 낳았으며 지식 공중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구술문화와 필사문화에서 지적 작업의 핵심은 보존과 전승 또는 소수의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주해였다. 그런데 인쇄본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지적 도전이 생겨났다. 다양한 관련문헌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습성 덕분에 기존 지식에 대한 객관적 거리두기와 비판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는 새로운 형식의 합리성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과학 지식이 급속히 축적되었으며 경전 해석을 독점했던 교회의 전통적인 권위는 세속어로 번역된 성경의 대중적 보급과 더불어 약화되었다. 인쇄술은 이렇게 15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유럽의 문화적 근대화 과정 — 인문주의 문화, 종교개혁, 과학혁명 — 에 기폭제 구실을 했다.

또한 인쇄문화는 차별적인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구축했다. 대체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구술문화의 상태로 남아 있었던 반면, 중상류층은 읽기, 쓰기의 실천을 습관화하면서 문자문화를 발전시켰다.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자기표현의 경험은 내면에 대한 성찰과 친밀성 영역의 계발을 낳는 한편 개인주의를 조장했다. 구술문화가 전통사회의 구성원들을 공통의 경험과 유사한 지식으로 연결시켜 놓았다면, 문자문화는 이들을 제각기 다른 경험지평과 지식세계로 안내했다. 사회적 위계와 관점이 복잡하게 분화했던 것이다. 인쇄술은 구술공동체보다 더 작고 다양한 상호작용 단위

들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과 혈연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는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를 만들어냈다. 지적·정신적·정치적 연대감이 공동체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인쇄언어(print languages)의 공유를 기초로 지식사회가 확장되는 한편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근대 국민국가가 성립되었다.

영상문화 또는 '시청각' 문화는 문자해독률이 높아지면서 인쇄문화가 정점에 오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부터 시작된다. 전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새롭게 발명된 다양한 전자미디어가 구술사회의 중요한 특징들을 되살렸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상문화를 전자문화(electronic culture) 또는 제2의 구술문화(the second oral culture)라고 일컫는 이유다. 전자미디어는 시각만을 특권화했던 인쇄 미디어와 달리 모든 감각을 활용해 촉각성과 공감각성을 자극한다. 이 제2의 구술성은 과거 전통사회의 구술성과는 엄연히 다르다. 전자 커뮤니케이션은 구어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쉽게 보존, 전파될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지금 여기'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문자문화, 인쇄문화가 관념과 분석, 합리성과 추상성을 계발했다면, 영상문화, 전자문화는 외양과 분위기, 감성과 구체성을 강조한다. 사람들 사이의 연대의식 또한 직접적인 면대면 상황이나 인쇄언어 또는 공통의 텍스트에 의해서만 형성되지 않는다. 이른바 '우리' 감각(We-ness)은 영토나 언어의 경계를 넘어 전지구적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전자미디어를 통해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새로운 부족사회, 공동체, '지구촌'이 도래하는 것이다.

2) 역사쓰기의 대상으로서 미디어 현상의 복합성

미디엄 이론가들의 역사인식은 의미 있는 준거점과 시대구분을 제시한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역사의 과정과 발전의 특징에 대한 이해방식, 그 배후의 연구가설과 해석 기준은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칫 지나친 일반화와 기술결정론적 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Cf. 김영희, 2004; 이동후, 2004). 이 두 가지 위험성은 실상 서로 연결된 것이기도 하다. 이 문제와 관련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앞서 보았듯 미디엄 이론가들은 무엇보다도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간의 기본적인 분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구술문화는 대면성, 상황성, 구체성, 일시성을, 문자문화는 이동성, 탈맥락성, 추상성,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삼는다. 이는 인간의 감각구조와 사고방식에까지 근원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인쇄문화가 인쇄술을 매개로 정점에 오른 문자문화를 보여준다면, 영상문화는 전자미디어를 활용한 구술문화의 반격처럼 나타난다.

구술성과 문자성 간의 이러한 단절적 관계는 문자이용능력(literacy)의 심리적·사회적 효과에 관한 여러 인류학적 연구들에 의해 기초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인간사회에서 문자해독능력의 발전과 확산은 비단 지성이나 논리력뿐만 아니라 경제, 종교, 행정, 법,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했다. 구체적으로 구디는 고고학과 역사인류학의 중요한 성과들을 참조하면서 문자의 활용이 초창기 사회조직들의 경제(회계장부, 매매계약), 종교(경전), 행정(인구자료, 세금 및 노역 관리), 법(규칙과 명령의 문서화), 가족관계(상속문서, 친족관계의 국가등록, 문자학습과 교육을 통한 가족으로부터의 물리적·정신적 이탈), 예술(예술활동의 기록과 전수를 통한 공식화, 서명을 통한 소유권 부여) 등에 미친 영향을 폭넓게 제시한다(Goody, 1990, pp. 151~160).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 역시 없지 않다. 구체적인 맥락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문자이용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문자이용능력의 구현양상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읽기와 쓰기를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에서 실천하는 개인들의 능동적 역할과 그 사회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7] 이와 같은 논의

7) 예컨대 스트리트는 문자이용능력의 '자율적 모델'과 '이데올로기적 모델'을 대비시키면서 전자를 비판한다. '자율적' 모델은 제한되고 특정한 문화권의 읽기·쓰기 실

는 구술성과 문자성 사이의 근본적 분할(great divide)이라는 미디엄 이론의 가정과 그에 기초한 사회문화사적 전망에 일정한 균열을 가져온다.

우리가 미디어의 의미론적 층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한다면 미디엄 이론의 사회문화사가 지나치게 기호체계 결정론에 기울어져 있으며 미디어와 행위자(집단) 사이의 역학관계를 상대적으로 간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시대의 커뮤니케이션에 지배적인 기호체계가 무엇이고 그것이 인간문명에 어떤 구조적 속성과 한계를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은 흥미롭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질문이 미디어 중심의 사회문화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 모두에게 표준지침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미디어를 기호체계, 상징형식, 기술, 제도라는 다차원적 시각에서 접근할 경우 더욱 다채로운 작업과 시대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미디엄 이론의 연구가 이미 알려주었듯 똑같이 글이라는 기호체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필사본과 인쇄물이라는 서로 다른 지지체 기술의 이용은 인지적·제도적·사회문화적 효과에서 큰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의 이행이 가져온 변화가 있다면 '필사본'문화에서 '인쇄물'문화로의 이행이 가져온 변화도 있다. 더욱이 문자는 읽고 쓰는 것이지만 인쇄물은 그 못지않게 '보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문자만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천을 쉽게 일반화해버리면서 문자이용 능력의 발전이 단선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며 진보나 문명을 표상하는 양 간주한다. 그것은 또 학교교육이라는 변인과 떼어놓고 문자이용능력의 독립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고자 하며, 문자이용능력의 영향이 인지발달(감정이입, 합리성, 비판적·추상적 사고 등)이나 경제성장의 기폭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미디엄 이론가들의 논의는 대체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리트는 이러한 모델을 비판하면서 '이데올로기적 모델'을 내세운다. 이 모델은 읽기/쓰기라는 사회적 실천이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것은 행위자들에게 문자이용능력의 의미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사회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며, 그러한 사회화가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기관들에 관심을 갖는다. 그것은 또 문자이용능력의 일반적인 영향보다는 특정한 사회집단들에 대해 지니는 실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며, 문자교육이 사회통제와 헤게모니의 유지에 수행하는 기능, 그리고 구술양식과 문자양식이 겹쳐지고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관심을 가진다(Street, 1984; 1995; Cf. Briggs & Burke, 2002, p. 13).

도 실어 나른다. 그렇다면 인쇄술, 인쇄물이라는 기술에까지 폭넓게 주의를 기울일 경우 우리는 구술성 대 문자성이라는 대립구도를 좀 더 다층적으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상징형식과 제도의 차원에 대한 관심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기대하게 만든다. 예컨대 서양에서 텔레비전 연속극은 라디오 연속극을 모델로 나왔으며, 이는 다시 19세기 잡지의 연재소설과 일정한 연속성을 지닌다. 이때 지배적 기호체계는 글에서 말로, 말에서 다시 이미지로 변화했지만 상징형식상으로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유지된 셈이다. 또한 제도화된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신문의 독자와 라디오 청취자, 텔레비전의 시청자는 모두 가정 내에서의 개인적 미디어 소비라는 공통성을 드러낸다. 이를 어떤 식으로 역사쓰기에 포섭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사회문화적 과정과 변동에 대한 훨씬 더 중층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조급한 일반화나 단순화, 미디어 중심적 편향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미디어의 여러 층위가 실제 그것을 통제하거나 이용하는 사회집단들과 맺는 관계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물론 기호체계나 상징형식, 기술이나 제도의 변화는 그 자체로나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역사쓰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내러티브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최대한 생략될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언제나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러티브에는 근본적인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미디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에 궁극적인 역사쓰기의 초점을 맞추는 경우 미디어의 물질적·기능적 잠재력이 특정한 시기의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가는 행위자(집단)의 권력관계와 실천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미디어 기술의 역사는 예를 들어 단순히 시공간 압축을 가속화한 기술혁신과 발전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수반하는 사회조직과 상호작용 질서의 재편성에 관한 서술과 함께 짜이는 편이 더 설득력 있다. 이는 미디엄 이론이 제시하는 역사적 시각의 '거시성'을 탈피해 분석단위나 분석수준을 미시화·다층화하는 문제와도

맞물린다. 요컨대 미디엄 이론처럼 미디어를 핵심 고리로 삼으면서도 더 다양하고 덜 단순화된 역사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디엄 이론의 강력한 역사적 내러티브를 그저 되풀이하기보다 비판적으로 참조하면서 미디어 간 이행과 접합의 지점, 이용주체가 미디어를 통해 만들어내는 사회문화적 단절과 변화와 지속의 지점들을 여러 각도에서 섬세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3)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시선

역사인식에 대한 미디엄 이론의 공과를 따져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 기술결정론의 혐의와 위험성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미디엄 이론가들은 미디어가 마치 물리적으로 주어진 것이자 사회문화 부문에 일방적인 효과를 가하는 외생변수인 것처럼 추상화시킨다. 더욱이 그때의 미디어는 기호체계나 기술 수준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디엄 이론은 심성사(histoire de la mentalité)나 문화사 일반에 남아 있는 관념론의 잔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연구대상을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것은 가치, 태도, 신념체계, 집단기억, 나아가 문화 전반의 변화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역사의 또다른 주인공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미디어는 관념들의 물질적 기반이자 그 생산과 유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사회문화사'란 이러한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문화적 과정과 변동을 탐구하는 역사쓰기 방식을 말한다. 이 역사는 미디어와 여러 사회문화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영향관계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마치 중심점이 두 개인 타원처럼 이중적인 논리과정 위에서 운동한다. 한편으로는 미디어가 가치, 정책, 산업, 수용자 등과 맺는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는 이처럼 언제나 '형성 중'이며 '이용 중'인 미디어가 사회문화 각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간단히 "미디어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사회문화사"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사'라고 이름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8] 그런데 구태여 '미디어 사회문화사'라는 차별화된 이름으로 커뮤니케이션사와 동일한 연구영역을 가리키고자 하는 데에는 당연히 전략적 의도가 없지 않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제도로서의 신문'과 '상징형식으로서의 저널리즘'이 정치적 통제-저항의 역사, 그리고 산업발전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국가' 단위에서 국민을 역사의 주체로 삼는 민족주의적 사관, 그리고 서구의 근대를 무의식적인 기준으로 놓고 그것과의 거리에 따라 과거를 '발전단계'로 재구성하는 진보주의적(때로는 목적론적) 사관 역시 두드러졌다. 연구대상이나 접근시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국내외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했다(이상길, 2005). '미디어 사회문화사'라는 이름에서 '미디어'라는 요소는 이 연구영역의 중요한 축이 다양한 미디어 층위의 사회적 구성과정에 대한 역사쓰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디어 사회문화사는 신문제도나 저널리즘 이외에도 여러 미디어 차원으로 대상범위를 확장한다. 미디어 기호체계들의 이행과 교차, 소설, 뉴스, 드라마, 쇼,

8) 셧슨은 구미의 커뮤니케이션사 연구경향을 크게 미디엄 이론으로 대표되는 거시사(macro-history), 제도사(institutional history), 그리고 고유의 역사(history proper)로 구분한다. 그는 거시사가 실제 연구를 무시하고 미디어 간 차이를 미미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거창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또 제도사는 너무 협소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미디어 제도 그 자체에만 주목한다는 점에서 각각 비판한다. 그는 이제까지 연구가 가장 덜 이루어진 분야이기도 한 커뮤니케이션 고유의 역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특정한 미디어에서 다른 미디어로의 구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미디어 내 조직과 이데올로기, 정치적·경제적 후원관계 등의 변동이 인간 경험의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질문한다(Schudson, 2005). 우리의 미디어 사회문화사 구상도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셧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코미디, 음악 프로그램 같은 미디어 상징형식의 발전, 미디어 기술의 확산과 미디어 네트워크의 변화, 제도화된 수용양식의 지속과 전환 등이 모두 연구대상이 된다. 이 층위들을 총체적으로 결합시키는 시도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사'라는 요소는 그동안의 미디어 관련 역사쓰기가 정치·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데 대한 일정한 반성을 함축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구기획이 정치·경제와는 분리된 별개의 실체로서 사회, 문화에 치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근대사회에서의 전문적인 활동영역의 분화 — 정치, 행정, 경제, 종교, 과학, 예술 등 — 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른바 사회문화 부문이 정치경제적 힘에 의해 얼마나 깊이 구조화되는지를 인정한다면 그러한 영역이 서로 무관하며 자율성을 가진다는 식의 부르주아적 표상은 거부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 자율적인 '일상생활'이 서유럽에서는 18세기 이후 노동활동과의 기능적·공간적 분리를 통해 구축된 영역이며 그 연구를 위해 거시적인 정치·경제구조와 미시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은 시사적이다 (Elias, 1995, p. 239). 미디어가 수용자의 여가활동과 노동력 재생산, 공통감각과 의미의 생산 등을 통해 일상생활에 가져오는 변화는 사회문화사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개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상징형식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수용하며 경험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체성이 구성되는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표상과 의식과 신체는 결코 정치경제적 힘과 조건의 외부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밖에도 한 사회의 공론장과 행정체계의 구축에서 미디어가 수행하는 역할이라든지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으로 제도화되는 동시에 광고와 소비주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자본주의 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은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영역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문화사라는 수식어는 기존의 역사쓰기에서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자 하는 제한적 의미만을 지닐 따름이다.

한편 사회문화사라는 용어는 또다른 함축을 가진다. 그것은 1980년대 이후 서구 학계에서 나타난 뒤로 국내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사회사 대 문화사, 제도사 대 일상사, 거시사 대 미시사의 관행적 이분법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를 뜻한다.[9] 커뮤니케이션사의 연구에서 사회사적 접근, 거시적 분석, 사회과학적 방법론만이 전부인 듯 여겨질 필요도 없고, 문화사적 접근, 미시적 분석, 문예비평적 방법론이 더 우월한 듯 떠받들어져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보다는 일종의 '통합사'가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구체적인 연구 속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강준만, 2007, 16쪽; 이상길, 2005, 112쪽). 물론 사회사에서 문화사로의 이행, 또는 이른바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은 논쟁적인 문제 제기와 대립지점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패러다임 변동이라는 측면이 있다(이상길, 2005, 114~116쪽; Bonnell & Hunt, 1999, pp. 5~11). 특히 인식론상으로 사회사의 (인과관계의 해명을 겨냥하는) '설명' 패러다임과 문화사의 (설명 가능성을 부인하는) '해석' 패러다임 간 차이는 쉽게 절충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통합의 시도가 불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이론적·방법론적 교훈의 차원에서다.

문화적 전환은 사회구조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언어, 의례, 상징, 신념, 사건, 문화적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성, 민족, 계급 같은 사회적 범주의 불안정성, 그리고 경험과 정체성의 유동성에 대한 인식을 자극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역사연구에서 무시되거나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연구대상(몸, 표상체계, 물질문화 등)과 자료들이 새롭게 조명 받게

9) 사회사 이후의 다양한 역사쓰기 경향 — 일상사, 문화사, 심성사, 역사인류학, 구술사, 민중사, 여성사, 미시사 등 — 은 국가별로 역사학의 전통과 역사학 장(field)의 상황, 정치문화에 따라 불균등하면서도 상이한 발전양상을 드러낸다(Cf. Lipp, 1995). 외국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풍속사라든지 일상사, 미시사, 문화사, 문화론적 연구 등의 용어들이 큰 차별성 없이 쓰이는 현상도 그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되었다. 문화적 전환은 이처럼 기존의 사회사와 달리 행위자(집단)의 능동성을 부각시키며 문화를 상징이나 가치, 규범 등의 추상적인 배치체계가 아닌 행위자들의 의미생산 활동이자 그를 통해 구성되는 경험세계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행위자들이 자신의 동기와 의도, 체험에 대한 해석을 매개로 행동하며 또 사회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는 구조와 경험, 사회사와 문화사 사이의 양자택일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역사과정에 대한 인식을 복잡하게 만들고 '객관주의적 계기'와 '주관주의적 계기'의 변증법적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물질적·경제적 층위와 상징적·육체적 층위를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의 이해에 어떻게 접합시켜 논의할 것인지, 또 미시적인 행태와 경험을 드러내는 자료를 거시적인 규칙성과 구조적인 제약을 보여주는 자료와 어떻게 함께 조직화해 읽어낼 것인지가 진정한 과제로 떠오른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사의 주된 방법론적 전략으로 흔히 거론되는 '두껍게 쓰기(thick description)' 역시 단순히 내부자 중심의 주관적 관찰과 감정이입식의 묘사로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하다. 그것의 목적은 경험의 복합성을 비환원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 의미의 복잡한 관계망을 해독하는 데 있다. 그에 따라 어떤 상징이나 행위, 사건 등이 편입되어 있는 '문화적' 습성과 규칙의 총체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또는 해석적 재구성은 행위자가 스스로 내세우는 내재적 논리와는 구별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 간의 체계적 연관성을 탐색한다(Geertz, 1973, 1장). 그렇다면 그것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인식론적 배려와 구태여 배치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미디어 사회문화사라는 이름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의 내적 긴장이자 통합의 지로 담아낸다. 그것은 나아가 근대성의 문제설정과 결합해 종래의 진화론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역사쓰기의 틀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마련한다.

4. 미디어 사회문화사와 근대성의 문제설정

미디엄 이론이 미디어 사회문화사에 제기하는 흥미로운 질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디어와 근대성의 관계다. 미디엄 이론가들은 인쇄문화의 확산을 근대성의 (아마도 가장) 핵심적인 양상으로 인식한다.[10] 그들에 따르면, 그것은 시각과 이성 중심의 문명을 낳았으며 근대 국민국가와 계몽주의, 개인주의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치적·문화적 근대화의 추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 일부의 논의는 이처럼 인쇄 미디어와 근대성의 연계를 강조하는 데서 한층 더 나아가, 원래 의도야 무엇이든 근대성 비판 또는 탈근대성 예언의 어조까지 띠기에 이른다.[11] 전자미디어를 통한 감각기관의 균형 회복과 이성중심주의의 지양, 구술문화의 새로운 복귀와 전지구적 공동체 형성을 전망하는 대목에서 특히 그렇다. 미디엄 이론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디어와 근대성의 복잡한 관계는 미디어 사회문화사에서도 여러모로 핵심적인 문제영역이다. 근대성이라는 역사쓰기의 포괄적인 틀과의 관련 속에서 미디어의 형성과 영향과 사회적 의미가 되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근대사회'와 그것에 긴밀하게 연결된 '매스커뮤니케이션' 체제가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현재를 진단하는 데에도 미디어와 근대성 연구는 유용한 준거를 제공할 수 있다.

---

10) 이는 사실 미디엄 이론가들에게만 국한된 견해는 아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심성사가 필립 아리에스(Philippe Ariès)는 "이른바 '근대성'이라고 하는 18세기 이래 심성의 변화"를 "문자문화에 의한 구술문화의 식민화"로 본다. 문자문화에서는 구술문화에서와 달리 예측과 조직과 계산이라는 추상적 능력이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때 문자문화는 인쇄술에 의해 보편화된 것으로, 실상 인쇄문화와 동의어처럼 쓰였다. 아리에스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한 권력기술(techniques du pouvoir)이 그에 상응한다고 본다(Ariès, 1977, p. 32).

11) 이 점에서 대표적인 근대성 비판가로 꼽히는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가 매클루언과 사상적 친연성을 보인다든지, 또는 프리드리히 키틀러가 미디엄 이론과 탈근대성(postmodernity) 이론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의 현상은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Cf. Winthrop-Young & Wutz 1999).

1) 미디어와 근대성

근대성은 서구사회에서 계몽주의로부터 산업혁명에 이르는 장기간의 변화와 이행,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타난 문화적 특징들을 추상화한 사회학적 이념형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와 국민국가의 부상, 합리성과 세속화와 개인주의의 성장, 도시화와 산업화의 전개 등을 한 단어 안에 요약하면서 복잡하고도 중첩적인 의미망을 구축한다. 미디어와 근대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래 미디엄 이론의 거시사적 일반론, 그리고 '근대화' 이론이 나름대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각에서 본격적인 역사연구의 관심사로 발전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 무렵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철학·문학·사회학·정치학 등의 분야에서 탈근대성 논쟁과 더불어 근대성 문제가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근대의 경험적 양상들에 대한 푸코 식의 계보학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근대세계의 형성에서 미디어가 차지하는 위치 또한 학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권의 저작이 각별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르겐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Anderson, 1983; Habermas, 1962).

사실 하버마스 책의 원래 출간연도는 1962년으로, 상당히 오래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1989년에 영역판이 나오면서 광범위한 분야에서 재조명되었고, 근대 미디어를 부르주아 공론장(bourgeois public sphere)의 제도적 토대로 이해하는 관점을 확산시켰다(Schudson, 2005). 서구에서 특히 17~18세기에 번성한 책, 팸플릿, 신문, 잡지 등은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공공성을 매개하는 기관이었으며 근대 국가와 시민사회의 중간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인쇄 미디어는 이렇게 해서 근대성의 발전과 맞물린 계몽과 비판, 공론조성의 정치제도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한편 1983년에 출간된 앤더슨의 책은 미디어와 근대성을 연결 짓는 대담하고도 독창적인 가설들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유럽에서

16세기 이래 인쇄술의 발달에 힘입어 서적의 대량출판이 이루어지고 신문이 널리 보급되는 과정은 사회구성원들이 국민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인쇄 미디어는 표준어의 성립을 촉진하고 동시성의 시간관을 확산시킴으로써 18세기 말 국민국가가 사람들 사이에 '상상의 공동체'로 자리 잡고 민족주의적 감정의 지지를 얻는 데 필요조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앤더슨의 책은 역사학·정치학·인류학·사회학 등 각 분야에서 원용되면서 근대적 시간관과 공간관, 표준어, 민족주의 등의 문제를 미디어와 관련지어 성찰하도록 자극했다.

『공론장의 구조변동』과 『상상의 공동체』는 논리구조나 역사적 사실의 정확성 차원에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저작들로 말미암은 시각의 전환은 미디어와 근대성 연구에서 무척이나 생산적이었다. 그것들은 무엇보다도 근대성의 사회이론가들이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미디어의 중요성을 엄밀한 조사연구에 근거해 뚜렷이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것들은 또 기존의 미디엄 이론이 (아이젠슈타인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시사적 관심 속에서 단순화시켜 논의한 문제들을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미디어는 국민국가의 정치체제, 자본주의와 같은 다른 근대적 제도들과 체계적인 관계 속에 위치 지어졌고, 근대적 심성(시간관, 공간관, 감수성) 및 이데올로기(민족주의 등)의 물질적·제도적 기반으로 인식되었다.

역사연구만큼은 아닐지라도 미디어와 근대성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제출되었다. 예컨대 존 톰슨(John Thompson)은 유럽의 초기 근대사회를 구성한 제도적 변화로 크게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과 교환체계로의 점진적인 이행이다. 둘째, 중세유럽의 다양한 정치단위에서 서로 연계된 소수의 국민국가로의 전환이다. 국민국가는 명확하게 설정된 영토 범위 안에서 주권을 주창하고, 중앙 집중적인 조세와 행정체계를 보유한다. 셋째, 이러한 정치적 변화 과정에서 무력과 전쟁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민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군사력의 정당한 사용을 독점했다. 넷째, 문화의 미디어화이다. 인쇄술을 비롯한 많은 미디어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대규모로 생산, 유통시켰으며 이는 사람들의 의식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제도적 변화는 그에 연관된 권력유형, 즉 경제권력, 정치권력, 강제력, 상징권력의 총체적 변화를 의미한다. 근대사회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체제와 더불어 성장하게 된다. 정보의 고정과 전달을 통한 상징재화 생산이 제도화되고 그 배포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이다(Thompson, 1995, pp. 26~31).[12] 이처럼 톰슨은 미디어를 근대사회 제도의 일부이자 상징권력의 기능작용에 중심점으로 부상한 기구로 자리 매긴다.

한편 니콜라스 간햄(Nicholas Garnham)은 근대성으로의 이행을 전 사회영역에서 노동분업과 전문화의 증가, 권력과 화폐를 매개로 한 일반적인 사회조정구조(관료제 국가, 법체계, 자본주의적 시장)의 발전, 비판적 합리주의와 과학적 세계관의 대두로 특징짓고, 이 각각의 차원에 미디어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한다(Garnham, 2000). 또한 크레이그 컬훈(Craig Calhoun)은 근대 매스미디어의 발달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간접적인 사회관계(indirect social relationships)의 확대를 가져왔고 이는 이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수준에서 밀도 높은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혈연과 지연에 기초한 전근대적인 공동체 생활과 경제적 교환은 개인들의 면대면 공존과 지식으로 특징지어지는 직접적인 대인관계에

12) 톰슨에 따르면,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그 생산과 배포는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혁신에 기초해서 발전했으며,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그것은 상징형식의 상품화를 가져왔다. 셋째, 정보의 생산과 수용 사이에 구조화된 단절이 존재한다. 미디어 기업조직에 의해 생산된 상징재화는 대개 넓은 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넷째, 시공간 안에서 미디어 산물의 이용가능성이 확장되었다. 대량생산과 배포의 일반화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미디어 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많은 수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디어 상품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체제는 근대사회의 정치경제에 고유한 역학을 촉발했다고 톰슨은 지적한다(Thompson, 1995, pp. 44~47).

의존한 반면, 근대사회에서는 간접적인 사회관계의 빈도, 규모,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런 관계는 화폐교환이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시장, 상품생산과 자본축적의 생산관계, 거대한 행정조직, 그리고 정보기술의 매개를 통해 형성된다. 직접적인 관계는 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무의미해지지는 않았지만 사업상의 사교처럼 도구적 활동들의 연계지점이나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친밀성의 영역 등 개인들 생활세계의 특수한 부분에만 한정되기에 이르렀다. 물질적 자원을 통제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들에서나 공공생활에서는 간접적인 대인관계가 일반화된다. 이처럼 근대사회에서는 간접적 관계가 직접적 관계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을지라도 양자 간의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은 크게 변화한다. 컬훈에 따르면, 미디어는 이러한 간접적 관계구조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근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이다(Calhoun, 1992).[13] 간햄이나 컬훈은 이와 같이 근대성의 형성에 미디어가 근본적이고도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컬훈의 표현을 빌리면, 미디어는 근대의 고유한 사회제도와 사회관계를 뒷받침한 "근대성의 하부구조"였다는 것이다.

2) 근대성의 비판적 이해

1980년대 이래 미디어와 근대성의 관계를 탐구하며 쏟아져 나온 적지

13) 컬훈이 보기에, 근대 초창기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나 가능했던 간접적인 사회관계는 도로, 철도, 전신, 전화가 발달하고 국가권력과 행정조직이 발전하면서 도시를 넘어 확산되었다. 새로운 조직유형과 교통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는 국가의 영토 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을 보장했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을 포함해 점점 더 많은 사회조직이 법인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형식을 갖추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보유통에 의존해 간접적인 사회관계를 구조화했다는 특징을 지닌다(Calhoun, 1992).

않은 역사적·이론적 연구들은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작업에도 중요한 실마리와 본보기를 제공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그 연구들의 창조적 재전유를 위해 근대성 범주에 대한 비판적 재인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미디엄 이론을 비롯해 지금까지 제출된 대부분의 '미디어와 근대성' 논의들은 서구 중심적인 근대성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 하버마스나 톰슨 등의 저작 또한 예외는 아니다. 거기서는 18세기 무렵 서유럽 사회에서 일어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변동을 일반화하면서 일종의 '당연한' 발전 경로로 특권화시키는 경향이 드러난다.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형성, 자본주의적 산업화, 공론장의 출현, 도시화, 전통의 쇠퇴와 세속화, 대중교육의 성장, 핵가족화,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의 발전 같은 요소들이 근대성의 이상적 원형을 나타낸다면 그러한 기준의 결핍, 변형 또는 그로부터의 거리가 '왜곡된', '비정상적인', 또는 '미완의' 근대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근대성은 단일한 체계이자 성취해야 할 어떤 실천목표로 제시된다. 1960~1970년대 사회과학계에 풍미했던 '근대화론'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모든 사회의 경제생활에서부터 정신문화에 이르는 온갖 변화를 사회진화의 모델에 따라 동일한 척도로 평가한다. '전통'과 '근대'라는 이항대립적 틀과 단선적 발전단계론으로 구성된 이 모델은 사실 계몽주의에서 비롯한 19세기 진보주의적 역사철학의 사회과학적 변형물이다. 그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근대만을 전제하며, 비서구사회의 '일탈적인' 사례들은 전근대, 저개발, 특수성, 후진성 등으로 간주한다. 매스미디어를 이용해 제3세계의 근대화를 도모했던 이른바 '발전커뮤니케이션'의 문제틀은 이러한 근대성 개념과 자본주의 세계체제 내 중심부-주변부의 미디어 정치공학이 결합한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십여 년간 탈근대·탈식민주의 이론과 역사서술이 기존의 근대성 개념에 내포된 서구중심적인 편견을 비판하고 나선 데 유의해야 한다. 다원적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라든지 식민지 근대성(colonial

modernity) 같은 개념은 그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다(Barlow, 1997, pp. 1~20; Taylor, 2004, pp. 195~196). 다원적 근대성 개념은 유럽의 근대성이 여러 가능한 모델 가운데 그저 최초의 것이자 창조적 모방의 대상이었을 따름이라고 본다. 그것은 유럽을 '지방화'하면서 다른 지역들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형식으로 발전한 근대성의 현실을 그 부정적·파괴적 성격까지 포함해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식민지 근대성 개념은 한층 더 나아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식민주의와 근대성이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구 근대성은 그 출발에서부터 비서구권 국가들에 대한 침략 및 식민화 과정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었으며, 식민주의는 근대성의 전 세계적인 확장과 전파에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근대성 개념은 이렇듯 근대성 개념과 그 실제 역사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을 시도하며, 식민권력과 근대화가 식민지에 남긴 흔적을 단순한 지배-저항, 착취-발전의 이분법을 넘어서 정교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식민지 근대성의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나 접근의 방점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대만의 관련 연구들의 경우 여러 가지 모습을 띤다. 식민지 근대성을 보편적 근대성의 일정한 변이형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식민주의의 폭력성과 근대성의 모순적 효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식민권력과 식민지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양자 간의 긴장과 갈등, 타협을 통해 구성되는 제도, 문화형식, 주체성 등에서의 양가적 모호성, 즉 혼성적(hybrid) 근대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도 있다. 식민권력이 문명화에 미친 영향과 지배기술에 유의하는 통치(governmentality)의 근대성 분석이나 식민지 사회의 선택과 창조적 반응을 강조하는 대안적 근대성의 논의도 존재한다. 게다가 이런 방점들은 당연히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하나의 연구에 용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창룽치, 2004, 126~127쪽). 문제는 근대화 과정에서 식민권력이 현지의 사회문화체계와 어떤 역학관계를 맺었는지, 그 유동적인 관계는 시기, 지역, 종족, 계층, 성별의

차이에 따라 어떤 변이를 드러냈는지, 식민지의 역사적 경험과 변동 속에서 식민주의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띠었는지 등을 질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민지 근대성의 문제의식은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지 않으며 실제 역사 속에서 근대성의 국지적이고 현실적인 발현 양상에 관심을 돌리게 만든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미디어와 근대성 형성의 관계 역시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미디엄 이론이나 서구의 역사서술이 보여주는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거기에 쉽게 대입되지 않는 한국의 독특한 미디어-근대 경험을 사회문화사의 관점에서 주목하고 그 의미를 풀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상길, 2002, 138쪽).

3) 다시, 미디어와 근대성

새로운 근대성 개념들은 세계 곳곳에서 제각기 다른 형식 아래 나타난 근대성의 복수적 경로와 다중적 지향을 인식하고 그 효과와 의미의 복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것들은 특히 한국의 근대화 과정 이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사회에서의 근대성 역시 대부분의 비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식민지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위에서 서구 모델의 영향을 받으며 성립했기 때문이다. 기존 근대성 논의에 대한 급진적 반성에서 나온 식민지 근대성 개념은 그러한 구체적 현실에 주목하면서 많은 연구 작업과 성과를 낳는 모태가 되고 있다.[14] 그것은

14) 조형근은 식민지 근대성을 견고한 개념이 아니라 "개념들의 연관과 위치, 기능을 새롭게 배치하기 위한 일종의 문제설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의 식민지 근대성 논의를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한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한국학자들의 식민지 근대성론이다. 이 논의는 민족주의, 식민주의, 근대성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양상을 추적하면서도 근대성을 본래 서구적인 현상으로 보며 그러한 모델이 비서구권에 확산, 변형되었다는 관점에 선다. 그 결과 이들의 연구초점은 주로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근대성이라는 측면에 맞춰진다. 다음으로

또 미디어 사회문화사 쓰기와 관련해 새롭게 검토해보아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을 제기한다.

우선 근대성과 식민주의의 상호불가분한 관계는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구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과학과 산업기술의 진보, 그리고 유럽인들에 의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배라는 두 사건은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전신, 전화, 영화, 라디오 등 근대 미디어 기술은 식민주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15] 그것은 정치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권력행사와 착취의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헤게모니의 기반이 되었다. 거기에는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미디어의 메시지 못지않게 미디어를 위시한 신기술이 그 자체 문명과 진보의 객관적인 표상으로 수용되는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이전에 비서구인들, 중국인들을 존중했던 유럽인들은 이제 기술 수준을 문화 일반의 수준과 혼동했고 나아가 생물학적 능력과 혼동했다.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은 문화발전의 새롭고 보편적인 척도로서 제국주의와 인종주의의 중요한 구성인자가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비서구인들에게도 널리 보급되고 주입되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미디어가 일방적인 통제도구의

국내의 식민지 근대성론은 근대의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과 근대성 자체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내포한다. 그에 따라 식민지 근대를 특수한 변이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근대성 자체를 복수적·중층적·균열적인 현상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문화론적 식민지 근대성 연구는 식민지 근대의 주체들이 겪은 일상적 경험과 그에 기인한 정서구조 등에 미시적으로 접근한다(조형근, 2006, 59~72쪽).

15) 이러한 관점을 헤드릭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유럽문명의 진정한 승리는 백신과 네이팜탄, 배와 비행기, 전기와 라디오, 플라스틱과 인쇄기의 승리였다. 즉,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기술의 승리였던 것이다. 서구의 산업기술은 어떠한 지도자, 종교, 혁명, 또는 전쟁보다도 더 세계를 변화시켰다. 오늘날 지구상의 가장 먼 구석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산업적 생산물에 의해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서구 산업기술에 의한 비서구세계의 정복은 아직도 약해지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이 정복은 19세기에 시작되었으며, 유럽 제국들의 확장 속에서 완성되었다. 기술과 제국주의의 연관성은 양쪽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제국주의사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사로부터"(Headrick, 1981, p. 4).

역할만을 수행했다는 식의 성급한 결론으로 치닫는다면, 이는 식민지 근대성의 합리적 핵심을 놓치는 일이다. 예를 들면 우리 역사에서도 대부분의 근대 미디어는 식민지 시기에 일종의 지배수단으로 일제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식민지 통치와 행정을 강화하고 경제적 착취를 지원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신문, 영화, 유성기, 전화, 라디오 등 많은 미디어는 토착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고 일상생활과 문화영역에서 혼종과 균열과 저항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도 이바지했기 때문이다(Shin & Robinson, 1999). '제국의 도구'였던 미디어는 이렇듯 수탈과 개발, 강제와 유인, 물리적 억압과 문화적 유혹이 교차하는 중층적인 과정 속에서 근대성의 경험을 직조했다. 이는 비단 식민지 근대성의 형성에만 적용될 수 있는 논의는 아닐 것이다.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특수성은 우리의 '식민지 근대' 시기 못지않게 이른바 '전근대' 사회, 그리고 '압축 근대화'와 '탈근대성'의 시대 전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이 균질하지 않은 고유한 경로들의 끈질긴 추적과 정교한 재구성이야말로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중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근대성의 문제설정' 안에 미디어를 배치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권력행사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재인식을 전제한다. 그것은 지배관계의 구축과 유지가 결코 단선적일 수 없는 복합적 과정이며 그 효과 역시 억압이나 금지, 또는 지배집단 의도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헤게모니, 미시권력, 일상성 같은 개념들이 동원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김경일, 2003; 주윤정, 2006). 그것들은 두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먼저 권력관계가 국가나 정치기구와 같이 제도적인 수준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미시적·비공식적 상호작용과 의미화 실천에도 개입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강제와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속은 지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것은 아주 드물고 극단적인 방식일 개연성이 높다. 예컨대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는 식민지 내부, 이른

바 '피지배자들'의 일정한 호응과 동조, 협력 없이는 일상적으로 지탱되기 어렵다. 파시즘 국가에 의한 국민의 동원 역시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순전히 외부적인 강압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그러한 맥락에서 '피지배자'의 자발적 복종, 미시적 저항, 이종교배적 상상, 모순적 태도와 행동이 주목받기에 이른다. '지배자'의 애초 의도와는 어긋나는 결과나 사건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배/저항의 대립구도를 상당히 모호하고 복잡하게 만들면서 하찮은 것으로 간과되어왔던 일상적·주변적·문화적 실천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것들이 지배권력과 지속적으로 교섭하고 그 전략을 우회하고 변형시키거나 그와 갈등하며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디어 수용자와 수용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각별한 의미를 띤다.

이러한 이론적 시야는 통시적으로도 전통과 근대(또는 근대와 탈근대) 사이의 단절 못지않게 접점, 혼성, 착종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나아가 그것은 그러한 개념적·선험적 구분을 사실의 복합성과 분석의 구체성 속에서 해체하도록 이끈다. '전통으로부터 단절된 급격한 변화의 근대'라는 관념이 서구사회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되풀이되어왔다(Goody, 2004, pp. 6~16). 이는 근대/탈근대 논쟁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제기로 보인다. 흔히 '비동시적인 것들의 동시성'이라 일컬어지는 무수한 현상과 사건들에 적절히 접근하려면 어느 한 요인으로 쉽게 환원되거나 단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회적·이데올로기적 맥락과 이질적 실천들의 '접합적 연속성'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근대 미디어가 얼마나 전통적인 가치관, 가족관계, 수용방식과 교접하며 이용되었는지, 이때 '전통'이나 '근대'라는 꼬리표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성찰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서구와는 달리 오랜 인쇄술 발전의 역사를 경험해온 우리 사회에서 인쇄본 문화는 이미 조선시대부터 번성했다. 또한 흔히 전근대 구술문화의 특징으로 꼽히는 '공동체적 음독'의 기반 위에 다독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적 묵독'의 실천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근대의 사회구성 내에 인쇄본 같은 (서양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대' 미디어의 활용은 어떤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읽기방식의 변화는 전통에서 근대로의 이행이기보다는 일종의 계층적 확산의 과정은 아니었는지 등의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결국 주체, 경험, 제도의 차원에서 전통/근대, 근대/탈근대 식의 단순화된 이분법을 넘어 사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는 광범위한 지역적·시대적 비교의 시각을 갖추고서 미디어의 여러 층위, 그리고 그와 상호작용하는 행위주체들의 이질적인 교차지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편 새로운 근대성의 문제설정은 공시적으로는 미디어사 이해의 맥락을 일국적 관점을 넘어 확장시킨다. 동아시아적·지역적 또는 제국적 시야의 확보는 식민지 근대성 연구에서도 강조되는 것이다(다나카 류이치, 2004; 창룽치, 2004). 근대 미디어는 사실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침략과 전파, 경쟁과 협력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비단 기술개발과 이식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치선전과 다국적기업의 활동, 문화교류의 차원에서도 그러했다. 그러한 '초국가성'은 미디어 기호체계와 제도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국적성'(예컨대 기호체계상 '한국어 방송'이냐 '일본어 방송'이냐, 또 제도상 '한국방송'이냐 '일본방송'이냐 — 이 둘은 오랫동안 연계된 문제이기도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주로 민족주의적 입장의 제국주의 비판 수준에서 조명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미디어는 일부 일국적인 성격을 드러낼 때조차 언제나 이미 초국가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층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소유관계, 다양한 상징형식, 제도의 측면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다. 이를테면 방송에 요구되는 여러 기술이라든지 객관주의 저널리즘이나 프로그램 포맷 같은 상징형식은 많은 부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입되고 실정에 맞게 변형되어 쓰인다. 다국적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해 현지화 전략을 펼치기도 하며, 외국의 법과 기구를 모방, 변종한 방송규제 제도가 실시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초국가성이 '이식'이나 '외래화' 이상의 '혼합'과

'변이'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 근대성의 역동적이고 특징적인 면모들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초국가적인 흐름 안에서 근대 미디어의 형성과 운동과정을 인식하는 작업이 긴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결국 미디어 사회문화사 쓰기는 근대성이라는 문제설정의 발견적(heuristic)·속기술적 유용성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 역사쓰기는, 만일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자칫 단순화하기 쉬운 역사의 이질적 지층들과 단면들을 세밀히 재구성함으로써 애초의 문제설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5. 나가며

이 글에서 우리는 미디어 사회문화사 연구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그려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역사적 구성 및 다른 사회제도들과의 관련성, 그리고 그 효과를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술의 틀을 모색해보았다. 그러한 의도 아래 다루어진 논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미디어가 기호체계, 상징형식, 기술, 제도라는 층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각각은 독자적인 역사쓰기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로 환원되거나 혼동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인식은 섣부른 일반화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층위들 간의 우연하고도 복합적인 결합태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 그것은 아마도 총체로서의 미디어에 대한 역사서술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때 미디어는 단지 상징적·의도적 교환을 촉진하는 수단을 넘어서서 커뮤니케이션의 무의식적 전제들과 공통감각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호작용 유형과 시공간 경험을 발생시키며 지식과 문화자본의 생산, 분배과정에 적극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권력관계를 구조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다.

둘째, 미디어의 '사회문화사'가 기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경제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연구의 관심영역을 확장하려는 의도와 더불어 사회사·문화사의 이론적·방법론적 대립을 실용적인 수준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셋째, 최근의 다원적 근대성, 식민지 근대성 등의 개념을 통해 갱신된 근대성의 문제설정은 미디어와 여러 사회제도 사이의 체계적인 관계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미디어와 근대성을 연결 짓는 새로운 문제설정은 커뮤니케이션의 근대화 이론에 내재하는 기능주의적이며 정책적인 지향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또 미디엄 이론이 보여주는 기술결정론적 경향을 비판하며 직관적·사변적이기보다는 엄밀한 역사적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문제설정은 단일하고 보편적인 근대성 개념에서 탈피해 다원적이며 혼종적인, '원본 없는' 근대성의 경로들을 탐구하도록 자극한다. 이는 권력관계에 대한 역동적이고 미시적인 재개념화를 바탕으로 역사적 실재를 다시 들여다볼 것을 제안한다. 그로써 전통/근대/탈근대의 뚜렷한 분류틀이 혼란스러워지고 자연스럽게 무력해질 만큼 경계현상과 혼합과 변이형에 주목하는 미디어 역사, 일국적 시야를 넘어서는 미디어 역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사회문화사의 인식론적 자리는 어디일까? 근대성의 문제설정은 푸코의 계보학적 기획이 내놓은 하나의 대답으로 우리를 이끈다. 계보학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에 대한 회상이나 인정으로서의 역사,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전제하는 역사, 그리고 진리와 지식으로서의 역사라는 지위를 거부한다. 그것은 현재를 상대화하고 문제화하며 지금의 상태가 우연적이고 임시적이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현재의 제도와 실천의 형성과정과 역사적 결과를 드러냄으로써 그 자연스러움을 파괴하고 거기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와 위험성, 그리고 변화가능성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는 근대성 비판의 성격을 띠는 근대성에 대한 연구이면서 '근대적 에토스'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칸트(I. Kant)가 열어놓은 철학적 질문의 지평 안에 있는 그 에토스를 푸코는 이렇

게 요약한 바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이 시기, 바로 이 순간은 무엇인가?"(Foucault, 1994). '우리'에 대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쉽사리 보편화할 수 있는 동시에 공허한 '나'에 대한 질문과는 다르다. 그것은 오히려 내 존재의 기반이자 한계이기도 한 특정한 사회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질문이다. 그 질문 밑에는 주체를 중심에 놓고 절대화하기보다는 상대화하려는 태도, 즉 우리의 우연성과 특이성에 대한 자의식이 깔려 있다. 우리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해서 우리 존재를 규정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성찰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철학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이 세계, 이 시기, 이 순간을 낯설게 만드는 이 호기심은 반성적인 시선, 역사적인 시선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Cf. Dean, 1994, pp. 48~55). 근대성의 문제설정은 이처럼 '현재'에 대한 반성적 에토스 속에서 '우리'의 구성과정과 경험을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기획으로 여겨진다. 미디어 사회문화사 역시 이러한 인식론적 자리에서 결코 멀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준만 (2007).『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서울: 인물과 사상사.

김경일 (2003).『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서울: 백산서당.

김영희 (2004). 역사적 접근방법으로서의 매체이론: 연구경향과 시사점. 임상원·김민환·유선영 외.『매체, 역사, 근대성』(151~184쪽). 서울: 나남.

이동후 (2004). 미디어와 사회변동 그리고 매체생태학. 임상원·김민환·유선영 외,『매체, 역사, 근대성』(121~150쪽). 서울: 나남.

이상길 (2002). 전화의 활용과 근대성의 경험.『언론과 사회』, 10권 2호, 111~143.

이상길 (2005).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사'를 위해: 연구방법론에 관한 성찰을 중심으로.『커뮤니케이션이론』, 1권 2호, 106~161.

조형근 (2006).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연구의 흐름. 공제욱·정근식 (편),『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49~82쪽). 서울: 문화과학사.

주윤정 (2006). 일상생활연구와 식민주의. 공제욱·정근식 (편),『식민지의 일상: 지배와 균열』(83~104쪽). 서울: 문화과학사.

田中隆一(다나카 류이치) (2004). 일본 역사학의 방법론적 전환과 '동아시아'의 근대.『역사문제연구』, 12권, 136~156.

張隆志(창룽치) (2004). 식민주의·근대성과 대만 근대사 연구.『역사문제연구』, 12권, 101~133.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윤형숙 역 (2002).『상상의 공동체』. 서울: 나남.

Ariès, Ph. (1977). A propos de『La volonté de savoir』. *L'Arc*, 70, 27~32.

Barlow, T. (Ed.) (1997). *Formations of Colonial Modernities in East Asia* (pp. 1~20).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Barthes, R. (1957). *Mythologies*. Paris: Seuil.

Bonnell, V., & Hunt, L. (1999). Introduction. In Victoria Bonnell & Lynn Hunt (Eds.), *Beyond the Cultural Turn: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society and culture* (pp. 1~32).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riggs, A. & Burke, P. (2002). *A Social History of the Media: From Gutenberg to the Internet*. Cambridge: Polity.

Burke, P. (2000). *A Social History of Knowledge: From Gutenberg to Diderot*. Cambridge: Polity.

Calhoun, C. (1992). The Infrastructure of Modernity: Indirect social relationship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integration. In Hans Haferkamp & Neil Smelser (Eds.), *Social Change and Modernity* (pp. 205~234).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arey, J. (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Boston: Unwin Hyman,

Cassirer, E. (1923). *Der Begriff der symbolischen Form im Aufbau der Geisteswissenschaften*. 오향미 역 (2002).『인문학의 구조 내에서 상징형식 개념』. 서울: 책세상.

Chartier, R. (1997). *Le livre en révolutions*. Paris: Textuel.

Condorcet, M. de (1988).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ès de l'esprit humain*. Paris: GF Flammarion.

Dean, M. (1994). *Critical Effective Histories: Foucault's Methods and Historical Sociology*. London: Routledge.

Eco, U. (1985). Le cogito interruptus. *La guerre du faux* (pp. 311~332). Paris: Grasset.(원논문 출판연도 1967).

Eisenstein, E. (1983). *The Printing Revolution in Early Modern Europe*. 전영균 역 (1991).『인쇄출판문화의 원류』. 서울: 법경출판사.

Elias, N. (1995). Sur le concept de vie quotidienne. *Cahiers internationaux de sociologie*, *99*, 233~243.

Escrpit, R. (1976). *Théorie générale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Paris: Hachette.

Foucault, M. (1994). *Dits et Ecrits Vol. IV*. Paris: Galimard.

Garnham, N. (2000). *Emancipation, the Media and Moder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문옥표 역 (1998).『문화의 해석』. 서울: 까치.

Goody, J. (1990). Lecture et écriture dans les sociétés. *Encyclopoedia Universalis. Symposium : Les enjeux*, 151~160.

Goody, J. (2004). *Capitalism and Modernity*. Cambridge: Polity.

Gras, A. (1993). *Grandeur et Dépendance. Sociologie des macro-systèmes techniques*. Paris: PUF.

Habermas, J. (1962). *Strukturwandel der Őffentlichkeit*. 한승완 역 (2001).『공론장의 구조 변동』. 서울: 나남.

Hardt, H. (1992). *Critical Communic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Headrick, D. (1981). *The Tools of Empire - Technology and European Imperialism in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Lipp, C. (1995). Histoire sociale et *Alltagsgeschichte*. *Actes de la recherche en sciences sociales*, 106/107, 53~66.

Meyrowitz, J. (1985).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New York: Oxford.

Meyrowitz, J. (1993). Images of Media: Hidden Ferment-and Harmony-in the Field. *Journal of Communication*, *43(3)*, 55~66.

Meyrowitz, J. (1994). Medium Theory. In David Crowley & David Mitchell (Eds.), *Communication Theory Today* (pp. 50~77). Cambridge: Polity.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박정규 역 (1997).『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Moores, S. (2000). *Media and Everyday Life in Modern Society*.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Ong, W. (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ld*. 이기우·임명진 역 (1996).『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Shin, K-W., & Robinson, M. (Eds.). (1999). *Colonial Modernity in Korea*. 도면회 역 (2006).『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서울: 삼인.

Schudson, M. (1991).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역사적 접근. 김승현 외 역 (2005).『미디어 연구의 질적 방법론』(230~249쪽). 서울: 일신사.

Street, B. (1984).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reet, B. (1995). *Social Literaci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in development, ethnography, and education*. London: Longman.

Taylor, C. (2004). *Modern Social Imaginarie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Thompson, J. (1995). *The Media and Modernity*. London: Polity.

Veyne, P. (1971). *Comment on écrit l'histoire*. 이상길·김현경 공역 (2004).『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서울: 새물결.

Williams, R. (1981).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nd Social Institutions. In Raymond Williams (Ed.), *Contact: Human Communication and its history* (pp. 225~238). London: Thames and Hudson.

Winthrop-Young, G., & Wutz, M. (1999). Friedrich Kittler and Media Discourse Analysis. In Friedrich Kittler, *Gramophone, Film, Typewriter* (pp. xi~xxxvii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